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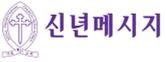
§ 2016년 포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고후 5:18-21, 창 33:1-4)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의인의 시련과 승리

(시 73:1-28)

시편 73편은 다윗왕 때 성전에서 봉사하던 악관(樂官)이요 시인이며 예언자였던 아삽이 쓴 시이다. 시인으로 하여금 마음의 평정을 잃게 만든 것은 물질이나 이성, 명예의 유혹이 아니라 악인들의 형통이었다. 상선별악의 하나님의 질서가 송두리째 무너져버리고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는 역현상을 경험하게 된 시인은 상심하고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의 섭리마저 회의를 느껴 **하마터면 실족하여 미끄러져 넘어질 뻔 했노라고** 서두에서 슬회함으로서 자신이 받은 충격이 막심했음을 표현한다.

악인들의 위세가 대단하여 그 번영은 부러움과 예찬의 대상이 되었고, 저들의 길을 따르는 추종자들의 수가 더해가고 있으니 이러한 사회상을 목격하는 시인의 심사가 평안할 수 없다. 악인에 대한 질투, 자신에 대한 허탈감, 무지한 백성에게 대한 분노, 하나님 섭리에 대한 회의 등으로 인하여 그 마음의 지성소가 한꺼번에 허물어지는 심정이었다.

아무리 곱게 보려고 해도 악인의 형통이 곱게 보이지 않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악인의 번영을 용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해석되지 않아 괴로워 믿음하지만, 그러나 시인은 결코 자신의 그러한 고뇌를 함부로 토설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 하나님 섭리의 복잡성을 자신의 지혜로 해독할 수 없음을 알게 된 시인은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를 찾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갈등과 회의에 대한 해답을 얻는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상선별악은 현세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며 의인의 최대 보상은 세상의 번영과 형통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악인의 형통은 꿈과 같은 것이어서 하나님의 아침이 오면 자취도 없이 순식간에 소멸되는 것이다. 그러하거늘 하나님 섭리의 심오함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악인의 형통을 질투하며, 하나님의 무관심에 불만스러워 했던 무지한 자신을 시인은 우둔한 짐승에 비교하는 한편, 이러한 자신을 시종 불드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훈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은총 앞에서 자신의 행복과 영광을 발견한다. 여기서 **시인은 의인이 받아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보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에 눈을 뜬다.**

그러므로 의인에게 현세의 형통이나 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하나님 자신을 최고의 보상으로 삼고 있는 의인은 하늘에서도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땅에서도 주님 외에 더 바랄 것이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시인은 자신의 몸과 마음이 쇠잔해 질 경우에도 자기의 영원한 분깃인 하나님 곁에 거하게 된 행복을 만족하게 여기며 주께서 행하실 모든 행사를 널리 전파하겠다는 결의를 한다. 이 말씀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수난에서 당한 시련과 유혹을 극복한 경건한 성도의 개선가로서 우리 모두도 새해에는 악인의 형통과 번영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의인의 시련을 보고 낙심치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28절)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서울교회의 거룩한 성도로서 승리자의 걸음을 담대하게 걷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자.

원로목사 이종윤



2017년 교회의 모든 사업 무기한 정지 수차례의 당회 파행 및 12월 당회 미개회로 인하여

지난 2016년, 다수의 당회원들이 계속적으로 당회 개회를 요구했으나 10월 정기당회, 11월 정기당회가 한 건의 안건도 논의하지 못한채 파행되고, 12월 정기당회는 개회조차 되지 않아 2017년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이에 매년 마지막 주일 찬양예배 후 예·결산을 다루는 특별제직회가 열리지 않아 새해의 모든 행정과 사업이 마비되었다. 또한 해마다 첫주 찬양예배 후 열리는 공동의회도 무기한 연기되었다.

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기각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는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교회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신청은 채무자가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인 위임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루는 것으로 종교단체 내부관계의 문제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신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2.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교회의 목사, 장로 안식년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와 장로는 각 6년 시무 후 1년의 안식년을 가지되 단 담임목사는 교회 형편에 따라 안식년을 분할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안식년은 매년 1월 1일 시작하되 신임투표 후 재시무는 신년도 업무인수를 위하여 안식년도 12월 1일부터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3조 제1항은 "담임목사 또는 장로가 안식년을 마치게 되면 당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시무하게 된다. 담임목사가 안식년을 분할 활용할 경우에도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재시무투표는 안식년 종료 2개월 전에 당회에서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교회의 정관은 안식년 제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의 헌법(이하 '총

1

2

회 헌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16조). 총회 헌법과 시행규정은 위임목사를 항존직으로 규정하여 스스로 사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70세의 정년에 달하기까지 위임목사 지위에 있다고 규정하고(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22조, 제27조, 제35조), 재신임투표로 위임목사를 사임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총회 헌법 시행규정 제26조 제7항).

이 사건 규정이 이 사건 교회의 정관과 같은 효력이 있어 위 총회 헌법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또한 채무자는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31조 및 헌법 시행규정 제2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2011. 11. 경 이 사건 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7. 1. 1.에 채무자의 6년의 위임목사 시무가 끝나고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안식년이 시작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29.

재판장 판사 이 제정



기각 사유는, 『이 사건 규정이 이 사건 교회의 정관과 같은 효력이 있어 위 총회 헌법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또한 채무자(박노철 목사)는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31조 및 헌법 시행규정 제2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2011. 11. 경 이 사건 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7. 1. 1.에 채무자의 6년의 위임목사 시무가 끝나고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안식년이 시작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안식년규정은 교회전체 성도들이 아닌 목사나 장로 등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므로 정관과는 별도의 규정체제로 제정하였지만 공동의회에서 신임을 받아 선출되는 최고치리기관의 구성원들의 임기를 제한하는 재시무투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초로 장로들이 안식년에 해당하면서 공동의회에서

위 규정의 제정과 시행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은 성도들의 총회인 공동의회에서 제정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일반 법안의 정관과 동일한 수준의 자치규범이며,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자치규범으로 허락하여 받아들인 이상 교단헌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효력이 있다.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은 서울교회 안식년규정에 관한 본안 소송에 들어가기 전의 절차로 안식년 규정에 관한 본안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된다.

지난 12월 29일 박노철목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관한 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에 이어 오정수장로 외 17명은 고등법원에 이 건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였다.

- 1, 2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결정문
- 3 즉시항고 접수증

접 수 증

3

채권자대리인 귀하

다음과 같이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1. 사 건 : 2016카합81487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 채 권 자 : 오정수 외 17명
3. 채 무 자 : 박노철
4. 접수번호 : 201612300002103029022
5. 접수일시 : 2016.12.30 09:43
6. 제출서류의 명칭 : 즉시항고장

2016.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

* 본 문서는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캄보디아 군인교회 사역



캄보디아 군선교사역 10년을 마치고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제3기 사역은 2가지 핵심사역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역은 여러군인교회들 가운데 장차 캄보디아 군선교의 모델교회를 선정하여 이를 집중양육하는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캄보디아 MCF인원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육하는 사역입니다.

군선교모델교회로 선정하여 사역하고 있는 교회인 캄퐁츠낭교회는 부대밖에 설립되어 주변군인 및 군인가족들을 대상으로 복음전파하고 있는 교회이고, 해병교회는 부대 안에 있는 부대 시설물을 예배 처소로 활용하여 군인 및 군인가족들에게 복음전파하고 있는 교회라는 면에서 군인교회로서 특이성이 있습니다.

1. 캄퐁츠낭 마하나임교회 집중사역 활동결과

캄퐁츠낭 마하나임교회는 2010년 성탄절 전도집회 사회 교회와 인접해 있는 수방사에 소속된 지역개발부대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하면서 사역을 출발하였습니다. 현재의 교회는 2012년 서울교회에서 후원하여 건립·봉헌하였으며, 캄보디아 중앙에 위치하여 캄보디아에 분포되어 있는 군인교회 및 기독교인 제자훈련 장소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2. 캄퐁츠낭 마하나임교회 자립을 위한 비전

(1) Seed-Money 시작 : 자립기금 조성

선교사들이 사역지에서 무수히 많은 교회를 건립하여 예배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궁극적인 사역의 가장 큰 당면과제는 예배·말씀공부

도 아니고, 교회가 선교사가 떠난 다음에도 종전과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공부하는 교회 활동을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헌신된 삶을 살면서 교회에 충성, 봉사하면 더할나위 없지만 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성도들에게 이를 바라기에는 사역현장의 현실은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캄보디아 군인교회의 모델교회로서 캄퐁츠낭 마하나임교회가 2020년에는 자립형 군인교회로 세워지도록 설립4주년 감사예배를 통하여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성도들에게 강요보다 리더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가 \$400을 헌금하여 송아지 1마리를 사서 교회 성도에게 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성도(72세)가 자기 집에서 기르는 닭2마리가 낳은 모든 알은 팔아서 교회 자립 기금으로 헌금하겠다고 교회에 가져 왔습니다. 이처럼 과부의 두 렘돈과 같은 심정으로 자립기금조성에 참여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3. 해병 마하나임교회 집중사역 활동결과

해병31여단은 2011년 한국 해군중앙교회와 영어캠프를 개최하면서 부대사역이 시작되어 부대 내에서 복음사역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13년 부대장교들을 대상으로 “해병 주요 전략 및 리더십교육 특별 프로그램”을 해군본부 및 해병여단의 지대한 관심속에 2013년 8월 5일(월)~9(금)까지 부대강당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 부대장으로부터 부대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2013년9월1일 첫 주일예배를 드리면서 “해병 마하나임교회-Marine Mahanaim Church”로 교회 이름을 정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HQ of 31 Brigade에서 HQ of Coast-Islands Defense Command로 부대명 변경 (해병31여단사령부에서 도서방어지휘사령부)으로 인해 차후 순차적으로 부대병력이 현재의 2배로 증가되었습니다.

4. 캄보디아 군인교회 사역을 위한 기도 요청

첫째, 모든 캄보디아교회에는 2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Rice_Christian과 Real_Christian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절기행사, 외부인원 교회방문, 단기선교팀 사역으로 인해 나누어 주는 물품이 있을 때만 교회에 나오는 성도이고, 후자는 꾸준히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성도입니다.

결국 복음전파사역이 Non_Christian - Rice_Christian - Real_Christian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Rice_Christian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Real_Christian으로 교회에 정착시킬 것인가가 선교사의 기도사역의 핵심입니다.

둘째, 마하나임 선교센터의 제3기 핵심사역중 하나인 캄퐁츠낭교회와 해병교회가 군인교회 모델교회로서 영적 성장과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셋째,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군선교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캄보디아 기독교인들이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무장하여 인도차이나반도 국가의 MCF요원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넷째, 아래사항에 대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 (1) 마하나임교회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Real_Christian으로 성장되도록
- (2) 캠프에 참석한 15명이 다니엘의 비전을 품은 기도하는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 (3) 해병부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초등학교 교실 증축, 영어/컴퓨터 교육을 위해서

캄보디아 마하나임 선교센터
이재율 선교사





호산나 대학 음악캠프



오승중 부장 (호산나대학)

호산나대학에서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제 6회 재능나누기 사랑더하기 음악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2011년에 시작된 음악캠프는 현직 교수들과 실용음악과 전공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북대, 서울예대, 소리제작소 등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다양한 조직의 구성원들이 모여 그 뜻을 함께 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대학인 호산나 학생들과 자신들의 재능을 기부하는 일반대학생들이 만나는 음악캠프는 음악을 매개체로 3박4일동안 교감하고 소통하는 의미있는 행사로 방학중에도 많은 재학생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보컬, 드럼, 기타, 피아노 4개 파트로 나누어 2:1의 집중 레슨을 통해 호산나대학 재학생들은 3박4일의 짧은 기간에도 악기에 익숙해지고 짧은 곡을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캠프 마지막날인 22일에는 호산나대학 재학생들의 부모와 지역주민들을 초청

하여 감동적인 콘서트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성탄을 축하하는 음악들로 구성된 콘서트는 캠프에 참여한 호산나대학 재학생들과 일반대학 재학생들이 합동 무대를 꾸며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음악캠프에 4년째 참석중인 임창섭 학생(경북대)은 "매년 감동과 보람을 느끼고 내년에도 꼭 참여하고 싶을만큼 겨울을 의미있게 보내는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박창점 전공학과장(호산나대학)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들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음악캠프를 통해 장애,비장애의 영역을 넘어 또래문화를 누리고 서로가 갖고 있는 재능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감동적인 콘서트로 마무리되는 음악캠프는 2016년에도 부모님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한 것은 물론 호산나대학 재학생과 실용음악을 전공한 일반대학 학생들사이에 장애와 비장애의 영역을 넘어서 우정을 나누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안내

· seoulch@hanmail.net
위의 이메일로 ①성명 ②주민번호 ③전화번호 ④주소 ⑤가족합산여부를 적어 보내주시면 연말정산자료를 파일로 회신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02-558-1106(담당: 송미라 권사)

동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월 1일 섬김의 교회 주일설교 및 성찬식을 집례한다. 1월 2일(월) 진위중고교 교직원신년감사 예배 설교를 한다. 1월 6일(금) 미래한국미디어 이사회에 참석한다. 1월 7일(토) 사랑의쌀운동과 국제울란바타르대 학교 이사회 개회설교를 한다.

■ 금주의 식사 제공 : 손병석 집사 김현정 권사 가정 (자녀 결혼을 은혜 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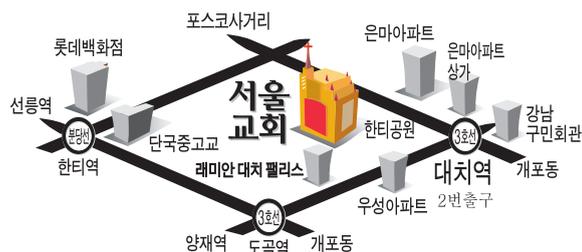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주실 하나님의 새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2. 기도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3.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루어 주시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나갈 리더들이 많이 양육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짧은이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